지역공동체의 활동 사례와 활성화를 위한 대안

유 수 상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복지재단
월평빌라 원장

요즘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희망'을 이야기한다. 농촌에 관련된 사람들이 입만 열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농촌이 그만큼 희망에 목말라 있다는 말일 것이며 농촌이 희망과 그만큼 멀리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제가 사는 거창도 최근 그 희망으로 웃고 또 울며 가슴을 쓸어야 했습니다. 바로 '승강기 관련 대학과 산업단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이 그것입니다. 늘 부족한 농촌에, 돈은 희망이 됩니다.

산업단지의 실체가 무엇이든 그것이 돈과 연관된 것이라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희망이고 농촌을 단숨에 변화시킬 대단한 것이 되어 열병처럼 사람들을 들뜨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 산업단지로 '희망'의 실체를 발견했다는 농촌은 만나기 힘듭니다.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 우리 귀에 너무도 익숙한 구체적인 상징들이 농촌의 희망이 못된다면 우리는 농촌의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농촌이 갖고 있는 '공동체', '공동체성', '공동체문화의 회복'이야 말로 농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상징, 열쇠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15년 전 이 '공동체의 회복' 이라는 '희망'을 찾아 산골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이며, 사회사업을 하는 사회사업가입니다. 제가 지난 15년간의 삶속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풀어 보려고 합니다.

1.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농촌으로 오기 전 농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리산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

시는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며 부지런히 묻고, 살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자와 자료를 찾아보면 농촌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땅 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면 참 바꾸고, 고치고 할 일 많은 땅 이구나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시작이 얼마나 왜곡 되어 있는가 하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8년 1월 12일 눈이 많이 오는데 거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눈이 많이 와서 더 이상 갈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마을을 2키로 앞두고 온 동네사람들이 이사 오는 저희 가정을 위해 신작로를 쓸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도시에서 따라온 많은 분들이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여기가 참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희망이 있는 곳이다'라며 감탄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며 바라보았던 농촌은 농업을 시작으로 교육, 문화, 복지, 경제, 인구, 어르신, 결혼이주여성, 아동...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열악하고 문제투성이라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손길이 시급하고 절박하다

저 역시 시각이 바뀌면서 농촌은 계몽의 땅이거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곳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고', '홍하게' 하여 물질적 풍요와 경제 발전을 구호로 삼고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생명의 보고'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마을에서 보물을 찾다

황주석 선생님이 쓴 '마을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에서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 '마을로 들어가기, 마을에서 대안 만들기' 라는 제목이 나에게 한편의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마을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이 들어서려는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활기에 차 있습니까? 죽은 듯 고요합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 -중략-
> 이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왔으며, 왜 이 마을 어귀에 서 있을까요? 그가 마을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왔습니까? 이 마을에 역병이라도 돌아 특효약(대안)을 들고 구원의 명의名醫로 들어서는 길일까요? 아니면 이 마을로 세상을 구원할 어떤 보물(대안)을 찾으러 온 것일까요?

마을에서 발견한 보물은 '공동체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농촌에는 공동체성이 유지되고

세대, 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 … ' 라는 문제들에

밑반찬 지원으로 어떻게 지역사회의 바탕을 기르고 어르신들의 인격을 세울 수 있을까요?

마침 잘게 썬 고기를 다 볶은 참이라 할머니께 '간 좀 봐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국자 맛보시더니 '됐다' 하시더군요. 지난 후에 그 때를 생각하니 '간 좀 봐 달라' 부탁드리는 것만큼 반찬 만들기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 싶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랑하는 남편 혹은 시어머니께 간을 봐 달라하고 '음, 맛있는데' 한마디 듣는 것으로 요리하는 장면이 완성됩니다. 그런 장면이 빠지면 뭔가 허전합니다. 왜

장님의 축하 인사로 시작하고 ... 모든 게 자연스럽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아저씨 한 분은 검은 비닐에 사탕 한 봉지를 사 오셔서 쑥스러워 하며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은 직접 농사지은 사과로 만든 사과주스 한 박스를 가져 오셨습니다. 방앗간 주인아저씨는 수고한 사람들 마시라며 사과즙 수십 팩을 주셨습니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과주스 한 박스, 사탕 한 봉지, 사과 주스 수십 팩 ... 어쩌면 방앗간 주인아저씨 말씀처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여'.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우리네 삶이었습니다. 떡 했다고 떡 한 덩이, 부침개 부쳤다고 한 접시, 김치 했다고 한 포기 ...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오가야 오래가고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인정이지요.

이렇게 지역사회와 부지런히 상관하니 일하는데 신이 납니다. 쉽습니다. 그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 참 복지 같습니다.

4. 공동체성 회복의 대안 "자주성과 공생성"[2)]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회를 사회답게 하는 가치, 그 중에서도 사회사업이 감당할 수 있는 가치, 사회사업이 지키고 살려야 할 핵심 가치는 바로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입니다.[3)]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핵심 가치라 함은,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서로 도우며 살고 또한 '남녀노소 빈부강약이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 이는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의 사람살이'를 명실상부케 하는 속성입니다. 자주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삶이라 할 수 없고,

상을 기해왔던 상호부조와 두레의 전통에 기반 한 농촌공동체가 시장지상주의의 반공동체성을 치유하는 가치의 근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먼저 농촌지역에서 '농촌공동체'가 갖는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가치를 올곧게 세우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풍성한 농촌공동체가 지역문화를 이끌고, 지역문화가 내재적 가치를 배제하고 경제적 가치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신자유주의가 황폐화시킨 세상을 치유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하는 동지들과 산골에서 촛불 하나를 켜고 오늘도 오롯이 서 있습니다. 내일 또 동지 한 사람이 저 마을에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과 그 일로 농촌에서 살아갈 여러분이 농촌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맞이하고 함께할 그 땅이 복 된 곳이기를 바랍니다. ♥